

안심전환대출 일주일만에 20조 돌파

신청접수 종료까지 1주일 남았지만 초반 수요 집중

“총 신청액 공급규모 초과 전망…추가 확대는 없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일주일만인 22일 공급 총액인 2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안심전환대출에 총 17만 4994건이 20조4675억원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동원 마라만두 단독 출시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동원 마라만두'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마라' 관련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원F&B와 협업을 통해 '동원 마라만두'를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화끈한 마라 소스에 오징어와 주꾸미로 만든 만두소를 가득 채워 풍부한 식감은 물론 매운맛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연봉 1억 이상 근로자 3.2%...대기업 평균 6487만원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 3634만원...전년 대비 4.6% 증가

우리나라에서 월급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더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가 50만명 미만으로 전체의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받아 임금근로자 154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봉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약 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3.2%에 해당되는 수치다. 환경연은 연봉을 6월 급여액을 1년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해 12를 곱한 뒤 전년도 연간 상여금과 성과급 총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어서 8000만원~1억원 미만 근로자는 5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봉액은 2000만원~4000만원 미만으로 43.9%(약 678만명)에 달했다.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392만명에 달해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약 7명(69.3%)에 달한다는 의미다. 2018년 국내 임금근로자 1544만

명의 평균연봉은 3634만원으로 전년(3475만원)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 정규

직의 2018년 평균 연봉은 64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7만원(0.4%)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지난해 평균 연봉이 3771만원으로 전년 대비 4.9%(176만원) 증가했다.

제 877 회차 당첨결과 (2019년 9월 21일 추첨)

5 17 18 22 23 43 + 1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2	1,716,607,18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5	45,776,19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67	1,584,31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9,80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67,27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추첨일 경우 익일연체



기아 모하비가 젊고 당당해졌다

“태풍에도 안정적 주행감”

기아자동차의 모하비가 마스터(Master)란 별칭을 달고 3년 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다. 마스터란 이름에서 느껴지듯 명실상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파워트레인도 이전 모델과 동일하지만 디자인과 각종 사양의 변화를 놓고 보면 신차급 변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의 연간 판매 목표를 2만 대로 잡고 정통성에 젊음을 더한 고급 대형 SUV로의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아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마스터 트림을 타고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오랑주리까지 편도 약 85km 구간을 주행했다. 코스는 약 7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과 시속 막바지 능선을 넘어가는 와인딩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모하비가 추구하는 정통 SUV의 방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차체 크기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형 모하비는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 축거 2895mm로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축거는 동일하고, 전폭은 5mm 늘었다. 전고는 20mm 낮아졌다. 내부는 마치 고급스러운 세단 느낌으로 기존에 알던 투박한 모습이 아니었다. 운전석에 센터페시아에서 도어까지 길게 이어지는 오크 우드 그레인 가나쉬와 최고급 나파카죽 킬링 시트가 적용됐다. 센터페시아는 각종 기능이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심플해졌다. 기아차는 연내 판매 목표를 2만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계

기판과 같은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 시인성이 뛰어났다.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자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V6 3.0L S2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은 260마력, 최대토크 57.1mmkg·m이다. 엔진에는 8단 자동변속기가 달려 있다. 디젤차 특유의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대시패널의 강성 보강 및 히터 호스 개선 등으로 정숙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승은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 속에 진행됐음에도 ‘모하비 더 마스터’의 안정된 주행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도심형 SUV 못지 않은 정숙성이 프레임바디 SUV 특유의 노면 충격을 잘 잡아내는 평가다. 이는 ‘모하비 더 마스터’가 후륜 서스펜션의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이 주요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후륜의 쇼크업소버의 장착 각도를 기존보다 더 직립화해 승차감을 개선시켰다. 쇼크업소버는 각도를 직립할수록 주행시 노면 굴곡에 따른 흔들림의 보원능력이 향상된다. 또 머드 스노우, 샌드 등 다양한 노면의 주행 환경에서 적합한 구동력을 선택할 수 있는 ‘힘로 주행 모드(터레인 모드)’도 주행에 힘을 보탤다. 이날 주행을 마친 ‘모하비 더 마스터’의 평균 연비는 10km/l 수준이었다. 콤팩트 모드와 일부 구간에서 연료 소모가 심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한 결과다. 기아차가 밝힌 공식 복합연비는 9.4km/l (18인치 타이어 기준)이다. 기아차는 연내 판매 목표를 2만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